

2023년 원가분석 보고서

프랜차이즈 치킨가격 인상의 적정성 검토

2023.12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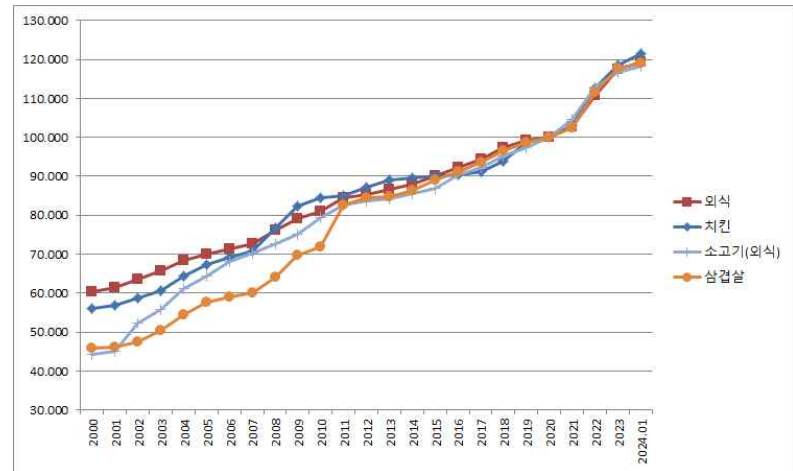
| | |
|-----|------------------|
| I | 문제제기 |
| II | 프랜차이즈 치킨업계 정보공개서 |
| III | 치킨 원가 분석 |
| IV | 치킨 업체의 재무제표 분석 |
| V | 결론 및 제안 |

I. 문제제기

□ 급등하는 치킨가격

- 최근 BHC치킨이 치킨가격을 인상했고, 2023년 상반기에는 교촌치킨이 가격을 인상하는 등 주요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이 앞다투어 가격을 인상하고 있음. COVID19 이후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했는데 치킨업계도 그러한 가격 인상대열에 동참한 것임. 하지만 치킨의 주요 원재료인 생닭가격이나, 부재료들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치킨업계의 가격인상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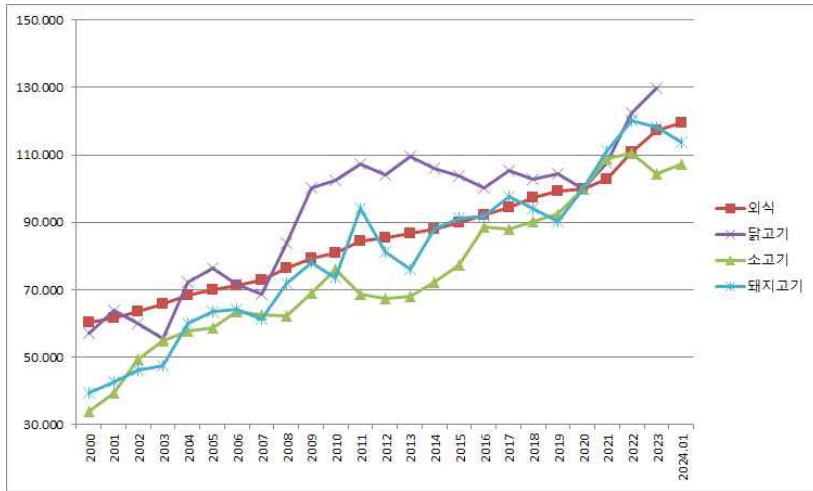
<그림 1-1 2000년 이후 외식분야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추이>



- 2000년 이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외식업종의 물가지수는 2000년 60.425에서 2024년 1월 119.47로 98% 증가했는데, 치킨의 경우 56.171에서 121.41로 116% 증가하였음. 이는 2000년부터 물가지수 비교가 가능한 품목 30개 중 12위에 해당함. 게다가 더 높은 순위에 있는 품목들은 쇠고기, 갈비탕, 설렁탕 같이 소고기를 사용한 음식이나, 삼겹살같이 돼지고기를 사용한 음식, 김밥, 라면, 짜장면, 짬뽕, 구내식당과 같이 기본 가

격이 낮은 품목으로 인상요인의 설명이 가능함.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닭고기
 기에 비해 같은 기간 더 큰 폭의 가격인상이 있었음. 2000년과 비교해 소
 고기와 돼지고기는 3배로 물가지수가 상승하였으나 닭고기는 2.4배 상승하
 였음. 최근 5년을 놓고 보더라도 치킨은 38개 품목 중 13위에 해당하였음.

<그림 1-2 2000년 이후 닭/소고기/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추이>



- 최근 닭고기 물가지수가 급격히 인상될 점을 고려하면, 닭고기 가격의 인
 상에 따른 가격인상요인이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있음. 다만, 닭고기 물가지
 수가 하락했던 2005~2007년이나, 2013년~2016년과 같은 시기에도 치킨 물
 가지수는 꾸준히 우상향한 점을 고려하면 원재료 가격이 인상될 때는 가격
 을 인상하고, 가격이 인하할 때는 이익을 흡수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 이에 프랜차이즈 치킨업체의 재무제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
 된 정보공개서 등을 바탕으로 치킨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II. 프랜차이즈 치킨업계 정보공개서 분석

□ 치킨업계 개황

-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https://franchise.ftc.go.kr>) 홈페이지에 공개
 된 정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치킨업종은 698개의 가맹본부에 787
 개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맹점수는 27,553개에 달함. 가맹점수
 가 가장 많은 브랜드는 비비큐로 2002개에 달하며, 그 다음으로 BHC(1770
 개), 교촌치킨(1337개), 처갓집양념치킨(1241개), 굽네치킨(1095개), 페리카나
 (1085개)순임. 가맹점수가 500개 이상인 브랜드 중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가
 장 높은 브랜드는 교촌치킨으로 7.5억원에 달하며, BHC 6.3억, 푸라닭 5.4
 억원, 비비큐 4.4억원 순으로 나타남.

<표 2-1 가맹점 수 500개 이상인 치킨프랜차이즈>

(단위 : 개, 천원)

| 브랜드 | 상호 | 가맹점 수 | 신규개점 | 계약종료 | 계약해지 | 명의변경 | 평균 매 출액 | 면적(3.3㎡) 당 평균매 출액 |
|----------------|--------------------|----------|------|------|------|------|------------|-------------------------|
| 비비큐(b bq) | (주)제너 시스비비 큐 | 2,002 | 442 | 186 | 0 | 136 | 442,369 | 30,766 |
| 비에이치 씨(BHC) | (주)비에 이치씨 | 1,770 | 370 | 216 | 3 | 256 | 632,531 | 31,869 |
| 교촌치킨 | 교촌에프 앤비(주) | 1,337 | 68 | 0 | 0 | 148 | 753,720 | 35,100 |
| 처갓집양 념치킨 | (주)한국 일오삼 | 1,241 | 156 | 14 | 127 | 102 | 229,800 | 15,987 |
| 굽네치킨 | (주)지앤 푸드 | 1,095 | 42 | 10 | 2 | 153 | 418,890 | 24,915 |
| 페리카나 | (주)페리 카나 | 1,085 | 37 | 0 | 67 | 82 | 121,948 | 10,408 |
| 멕시카나 | (주)멕시 카나 | 868 | 63 | 24 | 49 | 96 | 223,790 | 16,027 |
| 호식이두 마리치킨 | 호식이두 마리치킨 | 823 | 50 | 21 | 48 | 97 | 233,524 | 16,312 |
| 지코바양 념치킨 | (주)지코 바 | 722 | 106 | 7 | 1 | 64 | 300,288 | 24,000 |
| 자담치킨 | (주)웰빙 푸드 | 719 | 238 | 12 | 22 | 106 | 296,039 | 17,560 |

1) 정보공개서 등록연도는 2022년이나 가맹점, 직영점수는 직전사업연도말로 공시하고 있음.

| | | | | | | | | |
|------|------------|-----|-----|---|-----|-----|---------|--------|
| 푸라닭 | (주)아이더스코리아 | 704 | 105 | 0 | 1 | 118 | 536,287 | 28,918 |
| 60계 | (주)장스푸드 | 629 | 89 | 0 | 6 | 59 | 422,516 | 20,953 |
| 또래오래 | (주)농협목우촌 | 602 | 72 | 0 | 110 | 32 | 136,782 | 9,306 |
| 노랑통닭 | (주)노랑푸드 | 562 | 61 | 0 | 17 | 76 | 372,186 | 16,399 |

○ 이들 업체 중 상위 업체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치킨업체의 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았음.

1. 비비큐

- 비비큐의 가장 최근 공개된 정보공개서는 2024년 1월 24일에 공개되었으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예정으로, 일부 요약정보만 확인이 가능함. 현재 전체 정보가 확인가능한 정보공개서는 2022년 11월 2일의 정보공개서임.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 공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은 2020년 1746개에서 2021년 2002개, 2022년에는 2041개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의 점포별 평균매출액은 4.3억원으로 나타나 2021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전체정보가 공개된 2022년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1년 평균매출액은 4.4억원으로 평균매출액의 상한은 17억원, 하한은 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해당 수치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한 수치이며, 6개월미만 가맹점이나 특화점포 등의 매출액은 제외된 것임. 이에 따라 평균 산정에는 2002개 업장 중 309개가 제외되었음.

<표 2-2 비비큐의 가맹점 사업자 연간추정매출액>

(단위 : 개, 천원)

| 지역 | 2021년말 가맹점수 | 연평균매출액 | 연평균매출액(면적당) | 연평균매출액-상한 | 연평균매출액(면적당)-상한 | 연평균매출액-하한 | 연평균매출액(면적당)-하한 |
|----|-------------|---------|-------------|-----------|----------------|-----------|----------------|
| 전체 | 2,002 | 442,369 | 30,766 | 1,716,834 | 397,599 | 1,024 | 50 |
| 서울 | 344 | 534,719 | 58,516 | 1,716,834 | 346,640 | 2,422 | 550 |

| | | | | | | | |
|----|-----|---------|--------|-----------|---------|---------|--------|
| 부산 | 142 | 409,267 | 48,246 | 963,875 | 397,599 | 1,024 | 342 |
| 대구 | 94 | 390,841 | 34,117 | 1,103,669 | 145,047 | 2,552 | 851 |
| 인천 | 113 | 480,000 | 61,144 | 950,677 | 345,336 | 2,092 | 698 |
| 광주 | 72 | 426,538 | 35,865 | 990,130 | 90,258 | 5,249 | 1,010 |
| 대전 | 58 | 428,554 | 41,223 | 1,036,134 | 175,887 | 157,816 | 9,236 |
| 울산 | 46 | 381,364 | 53,650 | 754,495 | 211,974 | 1,515 | 505 |
| 세종 | 10 | 463,580 | 33,000 | 289,416 | 21,295 | 473,308 | 27,851 |
| 경기 | 504 | 479,507 | 48,753 | 1,228,419 | 261,861 | 17,631 | 1,349 |
| 강원 | 85 | 373,680 | 39,868 | 1,024,732 | 154,642 | 1,670 | 557 |
| 충북 | 62 | 357,056 | 29,502 | 1,030,086 | 146,711 | 1,436 | 479 |
| 충남 | 81 | 381,655 | 32,385 | 1,292,161 | 205,231 | 4,613 | 30,907 |
| 전북 | 64 | 413,094 | 30,058 | 1,236,532 | 111,027 | 1,822 | 608 |
| 전남 | 75 | 363,018 | 22,741 | 829,530 | 55,769 | 2,176 | 543 |
| 경북 | 100 | 369,051 | 31,569 | 432,398 | 132,570 | 536,283 | 50,163 |
| 경남 | 123 | 407,816 | 53,499 | 921,760 | 276,528 | 6,248 | 853 |
| 제주 | 29 | 366,443 | 22,728 | 805,852 | 105,976 | 7,329 | 2,443 |

(*) 면적당 매출액은 3.3㎡를 기준으로 함.

- 비비큐는 가입비 1100만원과 교육비 418만원을 가입시에 지불해야 하며, 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개점행사비가 존재함. 이외에 4,255만원의 인테리어 및 초도상품비 등이 존재하며(6평 기준) 이외에 종료시 반환되는 계약이행보증금이 있음(비비큐 올리브치킨 기준). 필수품목의 구매와 관련한 사항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가맹점사업자의 정확한 마진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2. 비에이치씨

- 비에이치씨의 가장 최근 공개된 정보공개서는 2023년 1월 24일에 공개되었으나 전체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전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는 2022년 10월 20일에 공개된 정보공개서임.
- 가장 최근에 공개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비에이치씨의 가맹점은 2020년 1619개에서 2021년 1770개, 2022년 199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의 점포별 평균매출액은 6억원 가량으로 전년도 6.3억원에서 약 5% 가량

감소하였음.

<표 2-3 비에이치씨의 가맹점 사업자 연간추정매출액>

(단위 : 개, 천원)

| 지역 | 2021년말 가맹점수 | 연평균매출액 | 연평균매출액(면적당) | 연평균매출액-상한 | 연평균매출액(면적당)-상한 | 연평균매출액-하한 | 연평균매출액(면적당)-하한 | 상정가맹점수 |
|----|----------------|---------|-------------|-----------|----------------|-----------|----------------|--------|
| 전체 | 1770 | 632,531 | 31,869 | 2,711,685 | 164,503 | 5,298 | 182 | 1627 |
| 서울 | 270 | 696,518 | 50,630 | 2,711,685 | 150,751 | 38,908 | 1,371 | 250 |
| 부산 | 103 | 546,740 | 40,249 | 1,595,068 | 105,068 | 23,483 | 4,697 | 99 |
| 대구 | 79 | 611,724 | 39,295 | 1,917,293 | 95,865 | 82,692 | 18,339 | 71 |
| 인천 | 96 | 620,795 | 38,717 | 1,331,399 | 125,477 | 18,196 | 182 | 88 |
| 광주 | 52 | 772,502 | 44,121 | 1,286,037 | 132,665 | 222,030 | 12,335 | 46 |
| 대전 | 46 | 701,885 | 40,990 | 1,502,342 | 94,404 | 428,408 | 18,626 | 43 |
| 울산 | 37 | 531,220 | 33,777 | 918,548 | 78,054 | 7,192 | 360 | 37 |
| 세종 | 12 | 638,007 | 32,176 | 1,332,547 | 60,669 | 205,385 | 8,215 | 11 |
| 경기 | 456 | 642,437 | 42,683 | 2,449,557 | 164,503 | 15,878 | 442 | 414 |
| 강원 | 82 | 445,968 | 27,535 | 995,107 | 80,348 | 16,189 | 463 | 77 |
| 충북 | 65 | 568,122 | 35,483 | 2,030,391 | 116,291 | 105,521 | 2,401 | 57 |
| 충남 | 91 | 567,610 | 31,537 | 1,384,517 | 104,810 | 40,117 | 535 | 84 |
| 전북 | 69 | 543,569 | 36,705 | 1,073,250 | 131,576 | 5,298 | 212 | 65 |
| 전남 | 67 | 584,900 | 37,746 | 1,217,256 | 92,749 | 17,041 | 1,309 | 59 |
| 경북 | 89 | 526,208 | 35,278 | 1,393,188 | 115,702 | 58,596 | 1,172 | 80 |
| 경남 | 121 | 459,055 | 31,488 | 921,600 | 97,554 | 53,306 | 1,777 | 113 |
| 제주 | 35 | 614,904 | 29,084 | 1,133,490 | 66,930 | 278,320 | 13,581 | 33 |

○ 비에이치씨는 점포의 추정매출의 산식도 보다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데, 회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액에 2.1(딜리버리형 점포), 2.3(비어존형 점포), 2.2(특화점포)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공개함. 회사의 가맹사업자 원가분석에 따르면 가맹사업자의 매출액 중 비에이치씨의 물품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면 가맹사업자의 비용구조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비에이치씨는 가입비 770만원과 교육비 2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딜리버리존 기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2,888만원을 지불해야 함(10평 기준). 이

외에도 계약 종료시 반환이 되는 보증금 등이 존재함. 이 외의 필수구매 품목 등과 관련한 자료는 비비큐와 마찬가지로 공개되어 있지 않음.

3. 교촌치킨

○ 교촌치킨의 경우 앞서 소개된 두 회사와 달리 가장 최근 공개된 정보공개서가 업데이트 되어 있었음. 공개 날짜는 2023년 7월 4일임.

○ 가장 최근에 공개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교촌치킨의 가맹점은 2020년 1269개에서 2021년 1337개, 2022년 1365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의 점포별 평균매출액은 7.5억원 가량으로 직전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표 2-4 교촌치킨의 가맹점 사업자 연간추정매출액>

(단위 : 개, 만원)

| 지역 | 2022년말 가맹점수 | 연평균매출액 | 연평균매출액(면적당 3.3㎡) | 연평균매출액-상한 | 연평균매출액(면적당)-상한 | 연평균매출액-하한 | 연평균매출액(면적당)-하한 |
|----|----------------|--------|------------------|-----------|----------------|-----------|----------------|
| 전체 | 1365 | 74,904 | 3,491 | 259,660 | 12,467 | 14,818 | 686 |
| 경기 | 299 | 87,630 | 4,008 | 259,660 | 10,066 | 24,805 | 1,157 |
| 서울 | 227 | 93,212 | 3,981 | 251,365 | 11,052 | 26,775 | 1,233 |
| 부산 | 109 | 55,828 | 3,153 | 175,956 | 6,151 | 21,911 | 1,596 |
| 경남 | 108 | 56,187 | 2,585 | 108,110 | 5,260 | 15,288 | 686 |
| 경북 | 74 | 61,323 | 3,160 | 155,665 | 7,509 | 14,818 | 882 |
| 대구 | 74 | 61,324 | 2,950 | 110,670 | 7,603 | 18,065 | 783 |
| 인천 | 62 | 92,448 | 3,288 | 230,376 | 10,435 | 32,503 | 1,382 |
| 강원 | 61 | 59,112 | 3,138 | 126,501 | 12,467 | 27,038 | 1,253 |
| 충남 | 56 | 71,414 | 3,508 | 168,160 | 7,853 | 17,315 | 1,332 |
| 전북 | 50 | 68,388 | 3,074 | 137,164 | 6,365 | 25,365 | 1,009 |
| 전남 | 47 | 70,015 | 3,274 | 142,336 | 7,462 | 34,179 | 1,380 |
| 충북 | 46 | 68,672 | 3,106 | 150,218 | 6,865 | 24,690 | 765 |
| 광주 | 42 | 75,851 | 3,993 | 124,252 | 7,857 | 45,671 | 1,920 |
| 울산 | 40 | 59,250 | 3,061 | 110,425 | 6,148 | 31,472 | 1,629 |
| 대전 | 36 | 74,093 | 3,631 | 150,228 | 7,469 | 34,230 | 1,759 |
| 제주 | 26 | 60,823 | 3,009 | 100,618 | 7,010 | 26,049 | 1,731 |
| 세종 | 8 | 84,900 | 3,530 | 97,921 | 5,898 | 58,984 | 2,684 |

○ 교촌치킨은 제품의 평균판매가격(21,136원)*연간 전체 공급물량으로 매출액을 추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6개월 미만인 17개 가맹점은 제외하고,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한 가맹점은 연간으로 환산하여 평균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교촌치킨은 가입비 660만원과 교육비 355만원(2인기준)을 납부하여야 하며, 홍보물에 소요되는 비용 16.5만원이 있으며(표준형 매장 기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최소 9,635만원을 지불해야 함(20평 기준). 이 외에도 계약 종료시 반환이 되는 보증금 등이 존재함. 이 외에도 냉장고 등을 공급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구매/설치해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1,370~1,560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음. 그 밖의 필수구매 품목 등과 관련한 자료는 비비큐나 비에이치씨와 마찬가지로 공개되어 있지 않음.

□ 정보공개서의 문제점

○ 정보공개서는 개인정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비공개로 하여 정보 ‘공개’ 서 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임. 비비큐의 경우 매출액의 세부내역도 개인정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하고 있는데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해당하는 정보라면 이미 공개된 정보로 비공개할 이유가 없음. 주석보다 상세한 정보라면 비공개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감사보고서 주석에 해당하는 정보는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Ⅲ. 치킨의 원가 분석

1. 가맹사업자 입장에서의 원가 분석

□ 치킨 원가의 구성

○ 치킨의 원재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닭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원재료를 본사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가맹사업자 입장에서의 원재료 가격은 본사에서 공급받는 가격 이 될 것임. 이 외에 주요 비용으로는 임대료와 인건비가 있으며 기타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상각비 및 수도광열비 등이 있을 수 있음. 본 분석에서는 주요 항목인 본사로부터의 매입비용과 임대료, 인건비를 분석하여 가맹사업자의 입장의 원가를 추정하여 보았음.

□ 원가의 추정

○ 앞서 주요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의 정보공개서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중 비에이치씨는 추정매출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공급가액에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방식을 사용함. 이를 역산하면 가맹점의 원재료율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의 총액을 추정할 수 있음. 비비큐와 교촌치킨은 식이 없거나, 주문량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에이치씨와 유사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함.

○ 인력의 경우 비에이치씨와 교촌치킨이 권장인력을 안내하고 있음. 비에이치씨가 안내한 권장인원에 따르면, 연 평균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는 매장은 대략 2500만원 정도를 매월 구매할 것이기 때문에(연평균매출/12개월 /2.1) 필요인력은 4명 가량으로 나타남. 교촌치킨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권장인력을 측정하고 있어 비에이치씨에 비해 권장인력이 더 많은 것으로 계산됨. 비비큐의 경우 권장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인원은 교촌치킨의 방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그림 3-1 BHC 정보공개서의 권장 종업원 수>

| 당사물품대금 (만원/월) | 점포운영인원(주방 근무 권장 인원) | | | 비고 |
|------------------|---------------------|------|-----|---|
| | 기본인원 | 추가인원 | 총인원 | |
| ~ 1500 | 2 | - | 2 | 2,000만원 초과 시 1,000만원 단위로 직원 1명 이상 추가 운영. |
| 1,500 ~ 2,000 | 2 | 1 | 3 | |
| 2,000 ~ 3,000 | 2 | 2 | 4 | |
| 3,000 ~ 4,000 | 2 | 3 | 5 | |
| 4,000 ~ 5,000 | 2 | 4 | 6 | |
| 5,000 ~ 6,000 | 2 | 5 | 7 | |
| 6,000 ~ 7,000 | 2 | 6 | 8 | |

<그림 3-2 교촌치킨 정보공개서의 권장 종업원 수>

| 기준 (월 평균 매출) | 권장근무 인력 (교육이수자 2인 포함)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2,000 만원 이하 | 3 인 이상 | 교육이수자 근무 | 교육이수자 | |
| 4,000 만원 이하 | 5 인 이상 | 교육이수자 근무 | 교육이수자 | |
| 5,000 만원 이하 | 6 인 이상 | 교육이수자 근무 | 교육이수자 | |

- 임대료의 경우 국가통계포털의 상권별 소규모 상가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정보공개서를 통해 평균매출과 면적당매출이 공개되기 때문에 면적을 역산할 수 있으며 해당 면적에 소규모 상가의 평균임대료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추정하였음.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임대료의 격차가 크지만, 평균매출액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역의 평균임대료를 적용하여 계산함.
- 마지막으로 초기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야 함. 비에이치씨의 경우 평균영업기간이 4년 4개월, 비비큐는 4년 7개월, 교촌치킨은 2361일로 안내되어 있어, 초기에 투자한 비용을 해당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 한다고 보아 순이익 계산에 반영함.

<표 3-1 업체별 가맹사업자의 월별 매출,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순이익 추정>

(단위 : 만원)

| 비비큐 | 월매출 | 원재료비 | 인건비 | 임대료 | 감가비 | 순이익 | 순이익률 |
|-----|-------|-------|-------|-----|-----|-----|------|
| 전체 | 3,686 | 1,755 | 957 | 92 | 105 | 777 | 21% |
| 서울 | 4,456 | 2,122 | 1,149 | 147 | 105 | 933 | 21% |
| 부산 | 3,411 | 1,624 | 957 | 76 | 105 | 649 | 19% |
| 대구 | 3,257 | 1,551 | 957 | 79 | 105 | 565 | 17% |
| 인천 | 4,000 | 1,905 | 1,149 | 56 | 105 | 785 | 20% |
| 광주 | 3,555 | 1,693 | 957 | 63 | 105 | 737 | 21% |
| 대전 | 3,571 | 1,701 | 957 | 46 | 105 | 762 | 21% |
| 울산 | 3,178 | 1,513 | 957 | 33 | 105 | 570 | 18% |
| 세종 | 3,863 | 1,840 | 957 | 68 | 105 | 893 | 23% |
| 경기 | 3,996 | 1,903 | 957 | 73 | 105 | 958 | 24% |
| 강원 | 3,114 | 1,483 | 957 | 39 | 105 | 530 | 17% |
| 충북 | 2,976 | 1,417 | 766 | 51 | 105 | 637 | 21% |
| 충남 | 3,181 | 1,515 | 957 | 49 | 105 | 555 | 17% |
| 전북 | 3,442 | 1,639 | 957 | 45 | 105 | 696 | 20% |
| 전남 | 3,025 | 1,441 | 957 | 51 | 105 | 471 | 16% |
| 경북 | 3,075 | 1,464 | 957 | 49 | 105 | 500 | 16% |
| 경남 | 3,399 | 1,618 | 957 | 32 | 105 | 687 | 20% |
| 제주 | 3,054 | 1,454 | 957 | 76 | 105 | 462 | 15% |

| 비에이치씨 | 월매출 | 원재료비 | 인건비 | 임대료 | 감가비 | 순이익 | 순이익률 |
|-------|-------|-------|-------|-----|-----|-------|------|
| 전체 | 5,271 | 2,510 | 1,340 | 127 | 75 | 1,219 | 23% |
| 서울 | 5,804 | 2,764 | 1,340 | 222 | 75 | 1,403 | 24% |
| 부산 | 4,556 | 2,170 | 1,149 | 121 | 75 | 1,041 | 23% |
| 대구 | 5,098 | 2,427 | 1,340 | 107 | 75 | 1,149 | 23% |
| 인천 | 5,173 | 2,463 | 1,340 | 115 | 75 | 1,180 | 23% |
| 광주 | 6,438 | 3,065 | 1,532 | 93 | 75 | 1,673 | 26% |
| 대전 | 5,849 | 2,785 | 1,340 | 75 | 75 | 1,574 | 27% |
| 울산 | 4,427 | 2,108 | 1,149 | 73 | 75 | 1,022 | 23% |
| 세종 | 5,317 | 2,532 | 1,340 | 96 | 75 | 1,274 | 24% |
| 경기 | 5,354 | 2,549 | 1,340 | 112 | 75 | 1,278 | 24% |
| 강원 | 3,716 | 1,770 | 957 | 67 | 75 | 847 | 23% |
| 충북 | 4,734 | 2,254 | 1,149 | 68 | 75 | 1,188 | 25% |
| 충남 | 4,730 | 2,252 | 1,149 | 74 | 75 | 1,180 | 25% |
| 전북 | 4,530 | 2,157 | 1,149 | 49 | 75 | 1,100 | 24% |
| 전남 | 4,874 | 2,321 | 1,149 | 50 | 75 | 1,279 | 26% |

| | | | | | | | |
|----|-------|-------|-------|----|----|-------|-----|
| 경북 | 4,385 | 2,088 | 1,149 | 63 | 75 | 1,010 | 23% |
| 경남 | 3,826 | 1,822 | 957 | 61 | 75 | 911 | 24% |
| 제주 | 5,124 | 2,440 | 1,340 | 99 | 75 | 1,170 | 23% |

| 교촌치킨 | 월매출 | 원재료비 | 인건비 | 임대료 | 감가비 | 순이익 | 순이익률 |
|------|-------|-------|-------|-----|-----|-------|------|
| 전체 | 6,242 | 2,972 | 1,532 | 137 | 153 | 1,448 | 23% |
| 경기 | 7,303 | 3,477 | 1,723 | 163 | 153 | 1,787 | 24% |
| 서울 | 7,768 | 3,699 | 1,723 | 378 | 153 | 1,815 | 23% |
| 부산 | 4,652 | 2,215 | 1,149 | 158 | 153 | 977 | 21% |
| 경남 | 4,682 | 2,230 | 1,149 | 91 | 153 | 1,059 | 23% |
| 경북 | 5,110 | 2,433 | 1,340 | 81 | 153 | 1,103 | 22% |
| 대구 | 5,110 | 2,433 | 1,340 | 143 | 153 | 1,041 | 20% |
| 인천 | 7,704 | 3,669 | 1,723 | 201 | 153 | 1,958 | 25% |
| 강원 | 4,926 | 2,346 | 1,149 | 78 | 153 | 1,200 | 24% |
| 충남 | 5,951 | 2,834 | 1,340 | 84 | 153 | 1,540 | 26% |
| 전북 | 5,699 | 2,714 | 1,340 | 73 | 153 | 1,419 | 25% |
| 전남 | 5,835 | 2,778 | 1,340 | 68 | 153 | 1,496 | 26% |
| 충북 | 5,723 | 2,725 | 1,340 | 93 | 153 | 1,412 | 25% |
| 광주 | 6,321 | 3,010 | 1,532 | 101 | 153 | 1,525 | 24% |
| 울산 | 4,938 | 2,351 | 1,149 | 90 | 153 | 1,195 | 24% |
| 대전 | 6,174 | 2,940 | 1,532 | 90 | 153 | 1,459 | 24% |
| 제주 | 5,069 | 2,414 | 1,340 | 95 | 153 | 1,067 | 21% |
| 세종 | 7,075 | 3,369 | 1,723 | 117 | 153 | 1,713 | 24% |

(*) 교촌은 2022년, 나머지는 2021년 기준임.

- 업체별로 월평균 매출액과 인건비, 임대료 등을 추정해본 결과 가맹사업자들은 편차는 있지만 약 20% 수준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됨. 물론 정보공개서에 누락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의 이익 수준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큼. 게다가 COVID19이후 배달 어플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배달어플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을 고려해야 함. 주문의 상당부분을 배달어플에 의존하는 경우 수익성은 이보다 훨씬 악화될 수 있음.
- 언론의 보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지만, 배달비가 소비자와 점주가 반반씩 부담할 때 3천원, 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6.8%~12.5%라는 보도가 있으며²⁾ 치킨 한마리당 5천원의 수수료가 든다는 보도도 있었음.³⁾ 업체

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41802?sid=103>

별로 마리당 수수료를 3~5천원으로 가정할 때 순이익의 변화를 추정해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2 배달비에 따른 가맹사업자 이익 변화>

(단위 : 만원)

| 지역 | 배달비 없는 경우 | | | 배달비3천원 | | | 배달비+수수료 5천원 | | |
|----|-----------|-------|-------|--------|-------|------|-------------|-------|-------|
| | 비비큐 | 비에이치씨 | 교촌치킨 | 비비큐 | 비에이치씨 | 교촌치킨 | 비비큐 | 비에이치씨 | 교촌치킨 |
| 전체 | 777 | 1,219 | 1,448 | 251 | 466 | 556 | (100) | (36) | (38) |
| 서울 | 933 | 1,403 | 1,787 | 296 | 574 | 743 | (128) | 21 | 48 |
| 부산 | 649 | 1,041 | 1,815 | 161 | 390 | 705 | (163) | (44) | (35) |
| 대구 | 565 | 1,149 | 977 | 100 | 420 | 313 | (210) | (65) | (130) |
| 인천 | 785 | 1,180 | 1,059 | 214 | 441 | 390 | (167) | (51) | (56) |
| 광주 | 737 | 1,673 | 1,103 | 229 | 753 | 373 | (110) | 140 | (113) |
| 대전 | 762 | 1,574 | 1,041 | 252 | 739 | 311 | (88) | 181 | (175) |
| 울산 | 570 | 1,022 | 1,958 | 116 | 389 | 857 | (187) | (32) | 124 |
| 세종 | 893 | 1,274 | 1,200 | 341 | 514 | 496 | (27) | 8 | 27 |
| 경기 | 958 | 1,278 | 1,540 | 387 | 513 | 690 | 7 | 3 | 123 |
| 강원 | 530 | 847 | 1,419 | 85 | 317 | 605 | (211) | (37) | 62 |
| 충북 | 637 | 1,188 | 1,496 | 211 | 512 | 662 | (72) | 61 | 106 |
| 충남 | 555 | 1,180 | 1,412 | 100 | 504 | 594 | (203) | 54 | 49 |
| 전북 | 696 | 1,100 | 1,525 | 205 | 453 | 622 | (123) | 21 | 20 |
| 전남 | 471 | 1,279 | 1,195 | 39 | 583 | 489 | (249) | 119 | 19 |
| 경북 | 500 | 1,010 | 1,459 | 61 | 384 | 577 | (232) | (34) | (11) |
| 경남 | 687 | 911 | 1,067 | 201 | 364 | 343 | (123) | () | (140) |
| 제주 | 462 | 1,170 | 1,713 | 25 | 438 | 702 | (265) | (50) | 28 |

- 배달비는 월별 매출을 21000원으로 나누어 배달 건수를 계산하였음. 모든 매출이 배달은 아닐 것이나 업장마다 배달과 포장의 비율이 다르고, 수수료율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만큼, 배달 건수도 일괄하여 추정함.
- 배달비가 없는 경우 이익률이 20% 이상으로 괜찮은 사업이었으나, 배달비를 3천원 가량 부담하는 경우 이익은 급격히 하락함. 필수인력에 대한 인

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28/112568394/1>

건비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직접 일을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이익이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배달비를 3천원으로 계산하는 경우 비비큐는 추가적인 이익으로 부족한 수준으로 계산되고, 비에이치씨나 교촌치킨은 이익이 어느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됨. 이는 매장의 평균적인 크기가 비비큐가 가장 작기 때문에 평균매출이 낮아서 발생한 결과임.

- 배달비와 수수료를 합산하여 5천원으로 계산하는 경우 대부분이 적자인 것으로 계산됨. 전체 평균으로는 3사 모두 적자상태이며, 일부 지역에서만 흑자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결국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배달플랫폼 관련 비용이 감소하지 않는 이상은 치킨 가격을 인상시켜야만 어느정도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음.
- 치킨의 마리당 원가를 분석한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더라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함을 확인할 수 있음. 조선일보는 마트치킨과 프랜차이즈 치킨을 비교한 기사에서 약 2만원의 치킨가격 중 분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닭, 오일, 포장 등의 가격을 대략 만원으로, 임차료와 인건비를 4500원으로,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점주부담 배달비를 약 6천원으로 계산하였음. 이에 따른 프랜차이즈 치킨의 순수익은 약 6백원~21백원으로 산정함⁴⁾. 뉴스원의 보도에서도 자영업자는 2만원 중 중개수수료 1224원, 카드수수료 550원, 라이터 비용 3000원, 부가세 788원, 원부자재 가격 11,000원을 부담하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고정비 약 3200원을 제외하니 마리당 130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설명했다.⁵⁾
- 이러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보아도,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가 제외되면 이익률이 20~30% 가량 상승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됨. 가맹점주의 입장을 고려할 때는 치킨가격의 인상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4) 치킨집 주인 600원 남길 때, 당당치킨 800원 남긴다
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2/08/19/OOHQSDWNSBC4TAIEY17ZFD5ZXQ/
 5) "치킨 한 마리 팔아 130원 손해"...배달 수수료에 주문 수수료까지
<https://www.news1.kr/articles/24802201>

IV.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의 재무제표 분석

1. BBQ

□ 재무제표 및 원가율 분석

- BBQ는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의 영업표지로,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는 상품연쇄화사업, 교육 및 교육가공품 도소매업, 외식사업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하며 종속기업으로 지엔에스에프앤비, 지엔에스우쿠야, 에이치와이 인터내셔널, 지엔에스디자인엔시스템, 판다스틱, 총 5개 회사를 두고 있음. 이들 중 지엔에스에프앤비, 지엔에스우쿠야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들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너시스비비큐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음.

<표 4-1 제너시스비비큐의 최근 5개년 요약연결손익계산서>

(단위 : 원)

|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
| 매출액 | 422,588,764,013 | 366,251,772,774 | 325,557,543,366 | 246,418,208,806 | 236,790,473,467 |
| 매출원가 | 263,166,683,350 | 221,478,680,171 | 198,938,266,185 | 147,066,517,652 | 152,021,918,097 |
| 매출총이익 | 159,422,080,663 | 144,773,092,603 | 126,619,277,181 | 99,351,691,154 | 84,768,555,370 |
| 판매비와관리비 | 93,510,669,812 | 79,420,156,509 | 71,641,391,149 | 74,278,604,769 | 67,112,360,786 |
| 영업이익 | 65,911,410,851 | 65,352,936,094 | 54,977,886,032 | 25,073,086,385 | 17,656,194,584 |
| 당기순이익 | 77,056,182,539 | 31,969,636,751 | 6,959,060,678 | 12,834,707,381 | 11,745,534,993 |
| 매출원가율 | 62.27% | 60.47% | 61.11% | 59.68% | 64.20% |
| 영업이익률 | 15.60% | 17.84% | 16.89% | 10.18% | 7.46% |
| 순이익률 | 18.23% | 8.73% | 2.14% | 5.21% | 4.96% |

- BBQ의 경우 2018년 이후 연평균 약 16%가량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가맹점수는 2018년말 1636개에서 2022년말 2041개로 연평균 6%가량 성장한 점을 고려하면 점포가 소화하는 매출액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사업자의 2019년 평균매출액은 5.8억 원 가량이었고 2022년의 평균매출액은 4.3억원으로 나타나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였음. 다른 채널을 통한 상품판매가 존재할 수 있으나, 비에이치씨나 교촌치킨과 달리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확인이 불가능함.

- 2021년의 연평균매출액에 점포수를 곱하면 2021년 연간 점포에서 발생한 매출 총액을 계산할 수 있고, 여기에 원가율을 고려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데, 2021년의 매출 총액과 2019년의 매출 총액은 평균매출액의 감소로 인해 차이가 크지 않음. 점포의 매출이 감소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다른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회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이 상승했을 수 있음을 암시함.

<표 4-2 제너시스비비큐의 최근 5개년 비용구성>

(단위 : 천원)

|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
| 재료 및 상품매입 | 289,695,072 | 214,755,259 | 203,438,317 | 148,582,005 | 198,755,942 |
| 인건비 | 20,856,864 | 16,009,429 | 18,022,987 | 19,742,946 | 19,882,984 |
| 경비 | 72,653,805 | 67,135,045 | 53,618,404 | 54,535,659 | 52,522,764 |
| 재고변동 | -26,528,388 | 2,999,104 | -4,500,051 | -1,515,487 | -52,027,411 |
| 합계 | 356,677,353 | 300,898,837 | 270,579,657 | 221,345,123 | 219,134,279 |
| 재료 및 상품매입/매출 | 68.55% | 58.64% | 62.49% | 60.30% | 83.94% |

- 제너시스비비큐의 원가의 2/3이상은 재료 및 상품매입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회사의 매출은 3/4 이상이 상품매출이기 때문에 매입비와 매출의 차액은 상당부분이 상품을 매입하여 가맹점에 유통하며 얻는 마진이라고 볼 수 있음. 최근 4년의 경우 재료비만 놓고 보면 약 30~40% 정도의 마진이 발생하고 있음. 물론 여기에는 규모의경제 등을 통해 마진을 확보하는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필수품목으로 묶여 가맹점이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할 것임.

- 회사의 2020~2022년의 영업이익률은 전부 15%를 상회하고 있는데, 가맹점주에게 공급되는 가격이 만원이라고 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1500원 가량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것임. 앞서 살펴본 가맹점주의 이익과 비교하면 본사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음.

2. BHC

- BHC는 주식회사 비에이치씨의 영업표지로 주식회사 비에이치씨는 상품연쇄화사업, 교육 및 교육가공품 도소매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속기업으로는 부자되세요, 불소, 보강엔터프라이즈, 빅투, BHC HK,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BHC USA 등 7개사를 보유하고 있음. 주식회사 비에이치씨의 중속기업 중 하나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는 매출액이 4천억 원, 영업이익이 500억이 넘어(2022년 기준) 비에이치씨의 매출액과 유사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는 경우 치킨업에 대한 분석이 어려울 수 있어 별도재무제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표 4-3 주식회사 비에이치씨의 최근 5개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 원)

|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
| 매출액 | 507,491,760,259 | 477,088,168,627 | 400,394,187,818 | 318,602,723,054 | 237,579,524,110 |
| 매출원가 | 316,143,829,195 | 277,904,670,206 | 231,443,780,068 | 187,907,774,054 | 140,006,869,759 |
| 매출총이익 | 191,347,931,064 | 199,183,498,421 | 168,950,407,750 | 130,694,949,000 | 97,572,654,351 |
| 판매비와관리비 | 49,521,891,359 | 45,392,253,859 | 38,985,851,371 | 32,957,030,286 | 36,877,868,739 |
| 영업이익 | 141,826,039,705 | 153,791,244,562 | 129,964,556,379 | 97,737,918,714 | 60,694,785,612 |
| 당기순이익 | 129,817,442,455 | 154,658,664,368 | 75,224,610,670 | 40,676,676,898 | 46,097,880,709 |
| 매출원가율 | 62.30% | 58.25% | 57.80% | 58.98% | 58.93% |
| 영업이익률 | 27.95% | 32.24% | 32.46% | 30.68% | 25.55% |
| 순이익률 | 25.58% | 32.42% | 18.79% | 12.77% | 19.40% |

- BHC의 매출은 2018년 2천억대에서 2022년 5천억원대로 급격히 상승하였으

며 연평균 상승률은 계산해보면 20%가 넘는 속도임. 점포의 평균매출액은 2022년 약 6억으로, 2020년 5.2억에 비해 평균 7%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다만, BHC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냉동식품이나 소스류를 온라인과 홈쇼핑에 유통하고 있어 해당 시장의 매출 상승으로 인해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가능성도 존재함.

- 2021년의 연평균매출액에 점포수를 곱하면 2021년 연간 점포에서 발생한 매출 총액을 계산할 수 있고, 여기에 원가율을 고려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데, 회사는 2020년, 2021년, 2022년 모두 추정 매출액/실제매출액을 계산한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표 4-4 비에이치씨의 최근 5개년 비용구성>

(단위 : 천원)

|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
| 재료비 | 303,697,115 | 264,314,993 | 219,650,453 | 177,505,185 | 132,128,908 |
| 인건비 | 19,119,289 | 18,213,915 | 15,308,584 | 13,128,918 | 15,140,422 |
| 경비 | 48,961,756 | 43,022,816 | 35,754,797 | 30,461,340 | 29,615,407 |
| 재고변동 | -6,112,440 | -2,254,800 | -284,203 | -230,639 | |
| 합계 | 365,665,720 | 323,296,924 | 270,429,631 | 220,864,804 | 176,884,737 |
| 재료비/매출 | 59.84% | 55.40% | 54.86% | 55.71% | 55.61% |

- 비에이치씨 역시 매출의 85% 가량이 상품매출이며, 재료비 항목의 상당부분은 상품의 매입임. 원가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회사는 매출과 재료비를 비교할 때 약 40%가량을 가산해 가맹점주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비에이치씨는 1년에 25~3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점주에게 공급되는 가격을 만원으로 보더라도 2,500원~3,000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가맹점주의 이익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불균형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음.

3. 교촌치킨

- 교촌치킨은 주식회사 교촌에프앤비의 영업표지로 주식회사 교촌에프앤비는 교촌치킨 등의 치킨프랜차이즈 유통업 및 외식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중속기업으로는 식품가공제조업을 하는 케이앳피푸드, 축산물가공 및 제조업을 하는 계림물산, 조미식품, 바이오사업을 하는 비에이치앤바이오, 제조업을 하는 케이앳앤팩과 도소매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발효공방 1991이 있음. 국외 중속기업으로는 미국에 KYOCHON USA와 KYOCHON FRANCHISE가 중국에는 Kyochon F&B(China)가 있음. 중속회사와의 내부거래가 많은 점,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수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교촌치킨의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석함.

<표 4-5 주식회사 교촌에프앤비의 최근 5개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 원)

|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
| 매출액 | 517,457,457,887 | 507,628,215,445 | 447,628,198,910 | 380,091,253,987 | 339,117,474,003 |
| 매출원가 | 428,111,510,589 | 397,290,400,308 | 345,113,285,277 | 283,974,744,470 | 264,469,752,190 |
| 매출총이익 | 89,345,947,298 | 110,337,815,137 | 102,514,913,633 | 96,116,509,517 | 74,647,721,813 |
| 판매비와관리비 | 80,505,289,834 | 69,375,373,869 | 61,484,940,617 | 56,764,324,783 | 54,357,675,341 |
| 영업이익 | 8,840,657,464 | 40,962,441,268 | 41,029,973,016 | 39,352,184,734 | 20,290,046,472 |
| 당기순이익 | 4,943,478,021 | 29,849,753,012 | 23,840,266,210 | 29,518,079,634 | 11,456,500,228 |
| 매출원가율 | 82.73% | 78.26% | 77.10% | 74.71% | 77.99% |
| 영업이익률 | 1.71% | 8.07% | 9.17% | 10.35% | 5.98% |
| 순이익률 | 0.96% | 5.88% | 5.33% | 7.77% | 3.38% |

- 회사의 매출액은 2018-2022년 매년 평균 11% 가량 성장하고 있어 BBQ와 BHC에 비해서는 성장속도가 다소 더딘 편이나, 4년만에 매출이 2천억원 가량 성장할 정도로 성장성이 높은 상황임.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2년의 가맹점수는 1365개로 2018년의 1073개와 비교했을 때 가맹점 수의 증가는 연평균 6% 정도로 매출액 증가속도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2022년 7.5억원으로 2020년과 유사한 수준임.

-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프랜차이즈 3사 중 유일하게 상장이 된 회사로 사업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매출 중 약 94%가 국내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회사의 매출은 2022년 기준 89%가 상품매출로 대부분의 매출이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매출이라고 볼 수 있음.

<표 4-6 교촌치킨의 최근 5개년 비용구성>

(단위 : 천원)

|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
| 재료비 | 419,587,224 | 387,696,562 | 343,661,130 | 277,658,624 | 256,657,254 |
| 인건비 | 41,428,371 | 35,815,042 | 32,253,255 | 30,126,498 | 26,077,535 |
| 경비 | 52,320,492 | 43,636,177 | 25,894,763 | 26,163,071 | 24,523,218 |
| 재고변동 | -4,719,287 | -482,007 | -7,246,073 | -2,645,619 | 992,289 |
| 합계 | 508,616,800 | 466,665,774 | 394,563,075 | 331,302,574 | 308,250,296 |
| 재료비/매출 | 81.09% | 76.37% | 76.77% | 73.05% | 75.68% |

- 교촌에프앤비의 원가율은 타사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낮게 나타남. 2019~2021년의 영업이익률은 8~10%정도였으나 2022년의 영업이익률은 1%로 낮아졌는데 이는 재료비율의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음. 회사는 2023년 치킨가격을 3천원 인상하였으며 공시에 따르면 이로 인해 매출은 14%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률은 5.6%로 개선되었음⁶⁾. 가격인상에도 여전히 타사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낮은 점, 원가율이 과도하게 높은 점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나 대부분 상품의 매입이기 때문에 구매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다만 사업보고서나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볼 때 특수관계자를 통한 매입은 아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익을 타사에 나누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경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음.

6)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7801044>

4. 닭고기 시세와 실적 비교

- 치킨 프랜차이즈 3사의 실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 치킨 가격의 변화와 비교해 보았음. 실제로 가격인상이 있던 최근에는 닭고기의 시세가 상승하긴 한 것으로 나타남. 2021년과 2022년은 닭고기 시세가(9~10호 기준) 각각 469원, 713원 인상 된 것으로 나타나 2년간 누적적으로 1000원 이상 상승하였음. 하지만 반대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닭고기 시세가 500원 가량 하락하였으나 이 시기에 치킨의 가격이 인하된 것도 아님. 실제로 회사들의 영업이익율이 BHC는 2019~2021년에, BBQ는 2020년~2022년에 크게 상승했으며 교촌치킨도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나은 시기가 2019~2021년임.

<표 4-7 생계시세와 닭고기 시세의 변화>

(단위 : 원)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생계시세(대) | 1,725 | 1,662 | 1,523 | 1,838 | 2,315 | 2,502 |
| 생계시세변동액 | | (64) | (139) | 316 | 477 | 187 |
| 변동률 | | -3.7% | -8.4% | 20.7% | 25.9% | 8.1% |
| 닭고기시세(9~10호) | 3,146 | 3,042 | 2,871 | 3,340 | 4,113 | 4,403 |
| 닭고기시세변동액 | | (104) | (171) | 469 | 773 | 290 |
| 변동률 | | -3.3% | -5.6% | 16.4% | 23.1% | 7.1% |

-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얻고 있는 실적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치킨가격의 상승이 곧바로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며, 주 원재료인 닭가공에서 이미 많은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닭고기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지 설득력이 떨어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점주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으나,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을 줄이고 가맹점주와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인지 의문임.

V. 결론

1. 프랜차이즈의 적정 이익 유도를 위해서는 정보공개 확대가 필요

□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주 뿐 아니라 소비자도 알권리를 위해 필요

- 프랜차이즈 업체는 자영업을 하기에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이들에게 손쉽게 창업을 유도하고 교육 등을 통해 적정 품질을 보장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음. 다만 이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영업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임.
-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격 책정에서 불투명성이 보이기도 함. 이들은 가맹점주를 유인하기 위해 초기 비용을 낮추는 대신, 독점적인 물품 공급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이윤을 추구함. 이 경우 치킨의 판매량이 증가하면, 업체는 가맹과정에서의 비용을 모두 보전 받고도 계속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업체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식이겠지만, 가맹점주는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장점만큼 더 큰 경쟁에 내몰리는 단점이 있으며, 영업과정에서의 이익률도 낮아지는 단점이 있음. 소비자 입장에서도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소비를 하게되는 문제가 발생함.
-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맹과 관련한 비용을 적절하게 책정하고 가격과 관련된 부분도 정상화 하는 것임. 이 경우 가맹점주는 창업 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지만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업장이 잘 될 경우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증가함. 실패에 대한 비용이 커지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신중한 창업을 유도하게 되는 장점도 있음. 하지만 자발적으로 가맹본부가 이익을 깎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차액가맹금의 규모에

대해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구체적인 품목별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총액이라도 공개하도록 해야 소비자들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음.

2. 소비자와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배달비에 대한 문제 해결도 필요

-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의 이익 뿐 아니라 배달비도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배달비의 경우 소비자는 편리하게 취식을 하는 대가로 일정부분 지불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도 매출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음. 배달 플랫폼의 사용도 가맹점주는 매출의 확대를 위해, 소비자는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부분이 있음. 플랫폼을 사용하고, 배달을 이용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비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도 함. 배달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적절한 수수료와 플랫폼에 지급되는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임.
- 다만 현재 상황처럼, 치킨 가격에서 점주도 5천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소비자도 3천원의 배달비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로 보이지는 않음. 프랜차이즈 업체별로 어플 등을 만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를 비교하고 할인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의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임. 결국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배달 플랫폼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질만한 방식을 고민해야 함. 또한 배달플랫폼이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프로모션 등을 하며 이를 가맹점에 전가한다면, 이 역시 불공정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감독도 필요함.
-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포장주문시 자신의 배달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포장주문에 대해 일정액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배달앱을 사용하는 경우 광고효과가 있는 만큼, 가격 할인을 통해 포장고객을 유도하고 배달앱의 사용을 줄여 수수료 만큼의 이익은 가맹점주가

얻게 되는 것임. 물론 일부 점주들은 편리성 때문에 전화 주문을 거부하고 배달앱만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비자들도 근거리임에도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편리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면 이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임. 각자가 조금 더 노력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프랜차이즈 치킨가격 인상의 적정성 검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0 (명동1가) 서울YWCA 701호

TEL 02-774-4060, FAX 02-774-4090

sohyub@consumer.or.kr, price@consumer.or.kr

<http://www.consumer.or.kr/>, <http://price.consumer.or.kr/>

※ 작성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